성주향 간호사 '유재라봉사상' 수상

사회적 약자 돕고 건강한 사회 만드는 데 헌신

성주향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제27회 유재라봉사상을 수상했다.

유재라봉사상은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딸 고 유재라 여사가 살아온 희생과 봉사의 삶을 기리기 위해 유한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매년 간호·교육·복지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각 상금 25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한다.

시상식은 10월 19일 유한양행 대연수실에서 열렸으며, 한승수 유한재단 이사장과 유재라봉사상 역대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간호부문에서 수상한 성주향 전 경남도의원은 1960년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했다. 한국방송통신대에서 법학 학사학위, 울산대에서 가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울산 YMCA 초대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초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성주향부부상담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성주향 전 경남도의원은 울산 YMCA 초대회장으로 몸담으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지역사회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했다. 여성직업개발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확대를 지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초대회장을 맡아 도박 추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단도박모임을 운영했다. 울산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성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치에 주력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사인 남편과 함께 '성주향부부상담연구소'를 운영하며 부부 위기 극복,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과 치유를 제공해오고 있다.

현재 사회공헌운동단체 '실버브레인건강수호단'을 조직하고 초대단장을 맡아 노인들의 두뇌건강 및 치매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성주향 전 경남도의원은 "유재라봉사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면서 "일생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었던 밑거름은 오로지 봉사·헌신·박애의 간호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노인치매예방을 위한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수유시설 검색 시스템 구축

전국 3259개 운영 … 10곳 중 4곳 아빠 출입금지

보건복지부는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수유시설 실태조사 정보를 토대로 '수유시설 검색 시스템(www.sooyusil.com)'을 구축했다. 이용자가 수유시설 위치정보를 등록해 수유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수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7월에 설치·운영중인 수유시설 3259개를 대상으로 수유실 내 비품 비치 및 청결상태, 환경상태, 이용현황 등을 조사했다.

전국에 설치된 수유시설은 △공중(다중)시설=1034개(31.7%) △공공기관=782개(24%) △공공청사=759개(23.3%) △교통시설=500개(15.3%) △학교(교육기관)시설=84개(2.6%) △민간기업=100개(3.1%)로 나타났다.

이 중 3048개가 외·내부인 모두 사용이 가능했다. 시설 관리주기는 86.7%가 1일 1회 이상이었다.

아빠도 이용 가능한 수유시설이 63.1%로 조사됐다. 하지만 36.9%는 아빠가 수유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유실 비품 중 소파·테이블은 96.2%가 갖춰져 있었다. 기저귀 교환대는 72.5%, 냉난방기·정수기는 76.8%, 수유쿠션은 51.0%만 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조명은 91.4%가, 실내온도 및 환기상태는 88.2%가, 수유실내 바닥 등 오염관리는 89.9%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전국에 설치된 수유시설 현황을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수유시설 정보를 토대로 수유시설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는 수유시설 관리·운영실태의 정례적 보고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이 정착되고, 수유 및 육아활동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기자 jslee@

'보건복지 상담' 카톡으로 하세요

보건복지부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한 보건복지분야 채팅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폰 이용 고객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www.129.go.kr) 또는 '129 보건복지부' 앱을 통해 보건복지 채팅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5년 문을 연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보건복지분야 정책 정보와 긴급복지, 정신건강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4년부터 채팅 상담을 실시했으나 별도의 추가 앱을 설치해야 하고 사용법이 다소 불편해 올해 6월부터 개선사업을 통해 카카오톡 채팅 상담시스템을 구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석하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129는 누구나 접근이 쉽고 친근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평일 낮시간 전화상담이 어려운 청년층이나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 계층에 채팅 상담이 유용한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간호사의 인수인계 의사소통'

상호존중과 공감적 의사소통 방법론

간호업무 중 '인수인계'가 간호사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전문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지침서가 나왔다.

'간호사의 인수인계 의사소통 : 상호존중과 공감적 의사소통 방법론'이 발간됐다. 이 책은 간호학자, 언어학·국어학·교육학을 전공한 인문학자로 이뤄진 다학제 연구팀이 집필했다. 저자로 정연옥 경동대 간호대학 교수, 석소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 등 6명이 참여했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프로젝트인 '의료기관 구성원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대화분석 연구' 중에서 간호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연구논문을 엮고 보완한 것이다. 현장 간호사들의 경험과 지식, 요구와 바람 등을 바탕으로 했다.

책의 저술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간호업무에서 인수인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인수인계 상황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급자 또는 선배로부터 배려받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밝혔다.

책은 7개의 장으로 이뤄졌다. △1장 의사소통으로서의 인수인계와 교육 △2장 간호사 간 인수인계 의사소통의 실태 △3장 인수인계 의사소통의 규범 △4장 인수인계 대화의 원형 △5장 인수인계 의사소통의 평가도구 △6장 인수인계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방법 △7장 인수인계 의사소통 교육의 결과.

각 장의 끝에는 실습 및 탐구 과제를 두어 앞에서 배운 내용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저자들은 "인수인계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모든 간호사들이 간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간호사들이 상호 신뢰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문화를 도입·정착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다"면서 "간호사들이 전문직업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 책이 활용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수문사 / 283쪽 / 2만4000원〉

이진숙 기자 jslee@

자살유족 위한 홈페이지 '따뜻한 작별' 오픈

온라인 추모공간 제공 … 심리지원사업 등 정보 제공

자살유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추모공간이 마련된 전용 홈페이지 '따뜻한 작별'이 오픈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유족을 위한 홈페이지 '따뜻한 작별(www.warmdays.co.kr)'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살유족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살유족의 추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홈페이지에서는 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자살유족의 감정과 애도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살유족이 직접 본인의 슬픔 단계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 자살유족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고인에 대해 미처 하지 못한 말, 추억하고 싶은 즐거웠던 경험, 기억하고 싶은 모습 등을 나누며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온라인 '추모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댓글 형식의 추모공간에서는 유족이 자유롭게 고인을 추모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모티콘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자조모임 정보, 애도상담·사후중재 서비스, 법적·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심리부검면담,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검사비, 치료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자살유족 심리지원사업'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로 '따뜻한 작별' 또는 '자살 유족 홈페이지'를 넣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가 1명 발생하면 최소 5~10명의 유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2016년 자살 사망자 수 1만3092명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유족의 수를 추산해보면 약 6만5460명에서 많게는 13만920명에 이른다.

자살유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17년 심리부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여한 자살유족 중 13.6%만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정신건강·자살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11월 1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결핵환자 밀접접촉자 5명 중 1명 '잠복결핵'

결핵 집단시설 역학조사 사례집 발간

결핵역학조사 결과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5명 중 1명은 잠복결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학교, 직장,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조사 결과를 분석한 '2017년 결핵역학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을 전국 3개 권역별로 배치하고, 집단시설 내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 시 지자체와 함께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결핵환자가 신고된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3759곳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집단시설별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는 의료기관이 1217건(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직장 1067건(28.4%), 학교 603건(16.0%) 순이었다.

조사대상자 14만여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206명이 조기에 발견됐다.

조사대상자 중 밀접접촉자 6만104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시행한 결과 1만884명(18.1%)이 양성으로 진단됐다.

또한 지난해 신고된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3만4250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검사를 한 결과 결핵환자는 282명, 잠복결핵감염자는 5365명(22.0%)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결핵역학조사 현황과 주요 사례 중 24건을 선정해 지표환자의 특성과 조사결과 등을 소개한 '2017년 결핵 집단시설 역학조사 주요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결핵ZERO 홈페이지(tbzero.cdc.go.kr)→결핵자료→결핵예방 전문자료→결핵예방 전문자료 국내'에서 열람 가능하다.

박미선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지역사회의 결핵전파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news.co.kr